



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

정홍근 심의관, 홍순복 서기관
(044-200-2132, 2135)

이낙연 국무총리, 「안드리 파루비」 우크라이나 국회의장 면담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13일(목)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「안드리 파루비(Andriy Parubiy)」 우크라이나 국회의장을 면담하고, 한-우크라이나 양국관계 및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

※ 파루비 국회의장은 우리 국회 초청으로 12.10-14간 공식 방한
(우크라이나 국회의장으로서 8년만의 방한)

□ 이 총리는 파루비 국회의장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, 올해 우크라이나의 독립 100주년을 축하했습니다.

○ 이어 1992년 수교 이래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온 것을 평가하고, 최근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양국간 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.

○ 한편, 이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3만명의 고려인들이 양국 협력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, 근면성실한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우크라이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.

※ 우크라이나 경제성장률(%) : -9.9%(2015)→2.3%(2016)→2.0%(2017)

※ 우크라이나는 1918.1.22. 오스트리아-헝가리 제국,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

- **파루비 의장**은 독립 100주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,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변국의 외침과 속박을 받은 유사점이 있으나,
 - 한국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높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내 우크라이나에게는 모범이 되는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.

- **파루비 의장**은 우크라이나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, 우크라이나가 강점을 보유한 IT, 농업, 우주·항공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했습니다.
 - 아울러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국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.

- **이 총리**는 세계의 곡창지대이자 높은 수준의 우주·항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농업, 우주·항공, IT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공감을 표하고,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기꺼이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.

※ 우크라이나는 '유럽의 빵 바구니(bread basket)'로 불리는 농업·곡물 수출대국이며, 자체 우주 발사체와 항공기 제작기술을 보유한 우주항공 강국